

종합·해설

■ ‘마이웨이’ 택한 孫... 승부수 통할까

광주·전남 경선결과가 성패 좌우

“토론회 불참... 국민속으로 바로 들어 가겠다”

“경선 완주하며 아름다운 패배 준비” 추측도

조직·동원 경선에 항의, 사흘동안 공식 선거 활동을 접었던 대통합 민주신당 손학규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경선 복귀를 선언과 함께 ‘독자행보’라는 또 다른 승부수를 던졌다.

경선대책본부 해체와 여의도 선거 캠프 사무실 폐쇄를 통한 ‘조직없애기’와 TV 토론 등 경선의 틀에는 구애받지 않는 ‘나홀로’ 경선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조직·동원 선거에 의해 피해를 본 당사자라는 입장에서 조직을 없애는 과격은 선 보인다 씀이며 “남은 이념싸움과 패거리 싸움만 벌이는 토론회에는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즉, 경선을 완주하겠지만 게임방식은 그의 의지대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직력에서 열세인 상황인만큼 국민 지지도 현우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손 후보가 선대위 해체를 선언하면서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모바일투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 대목은 이를 반영한다.

이 같은 손 후보의 승부수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경선전에 한창인 상태에서 자신의 손발을 스스로 묶고 국민 속으로 몸을 던진 것이지만, 트랙에 한쪽 다리만 걸친 상태로 경선 레이스를 지속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얼마나 반향을 일으킬 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손 후보의 일체의 협의없이 경선대책본부 해체 등을 발표하자 그동안 캠프에

서 활동했던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선거운동을 주도할 진영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손 후보측 우상호 대변인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다. 선대본 해체 등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며 “후보가 회견중 ‘신당이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이 정신을 갖고 가겠다’고 한 것은 일화일어나 이벤트용이 아니라 승부를 걸어 봐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손 후보의 이날 결단이 경선 승리를 위한 승부수라기보다는 ‘경선 완주’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패배’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손 후보의 승부수 성공 여부는 추측 직후인 오는 29일 실시되는 광주·전남 경선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광주·전남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할 경우, 손 후보의 승부수는 강력한 촉발력을 보이며 경선판을 뒤엎을 전망이다. 그러나 광주·전남 경선과 부산·경남 경선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손 후보는 결국 경선 패배의 길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손 후보의 느닷없는 승부수에 신당과 정동영-이해찬 후보측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형상 탈당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당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행보를 하겠다는 의미가 기 때문이다.

정동영 후보측이 손 후보 기자회견 후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의 주장을 “네거티브 공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이 조직동원 대상으로 흐르는 데 항의하며 독립 활동을 중단했던 손학규 후보가 21일 오전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복귀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라고 맹비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해찬 후보측은 “말리다 못해 교육력을 낸 것 같으니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첫날 김정일과 아리랑 관람

(대규모 집체극)

■ 미리보는 盧대통령 평양 일정

둘째날 정상회담·셋째날 개성공단 방문

제2차 남북정상회담(10월 2~4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도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에서의 2박3일을 미리 따라가 본다.

◇10월2일=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집결한 방북단은 아침 일찍 평양을 향해 떠난다. 노대통령 내외도 전용차를 타고 청와대를 출발해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합류하게 된다.

방북단 200여명을 태운 남측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뒤 개성을 경유해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타고 평양으로 향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디서 노대통령을 맞을 지는 막판까지 알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성에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초임이고 의장대 사열이 가능한 ‘조국통일 3대현장 기념탑’이 거론되고 있다.

정오쯤 평양에 진입한 노대통령은 연도에 늘어난 평양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 도착, 김정일 위원장과 첫 번째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대통령은 오후에는 만수대의사당으로 공식 국기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방문한 뒤 북측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은 이날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아리랑공연을 김정

일 위원장과 나란히 앉아 관람할 가능성이 높다. 평소 아리랑공연은 오후 8시30분께 시작돼 1시간30분 가량 진행된다.

◇10월3일=오전엔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1시간여 동안 공식 면담한 노대통령은 오후와 저녁에 잇따라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 현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차 정상회담 당시에는 회담 둘째날 자정이 가까워져서 합의문이 도출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저녁 늦게까지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만찬은 노대통령이 주

최한다.

◇10월4일=오전에는 참관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포 서해갑문과 김중태 전기기관차공장, 평양종합방직공장 등 산업시설과 김일군영청평양유대, 인민문화궁전, 고려의학과학원, 인민대학총당 등 평양 내에 위치한 명소들이 참관지로 거론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주최하는 오찬을 끝으로 공식행사는 모두 마무리되며 노대통령은 육로를 통해 귀환길에 오른다.

노대통령은 남측으로 내려오기 앞서 개성공단에 들러 근로자들을 격려키로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북측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와 남측 단독행사로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국가정보원을 방문, 김만복 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DJ “통일 열망 가진 후보 지원해야”

미국을 방문중인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20일 벌어진 차기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 “남북 통일을 위해 통일이 의욕을 갖고 열망을 가진 후보가 당선되도록 우리 젊은이들이 이번 대선에서 가능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SAIS)에서 가진 토크쇼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젊은 세대가 어떻게 준비하고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한 학생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변했다.

이 발언은 특히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후보가 치열

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특히 손 후보가 정 후보측의 조직된 동원선거 의혹과 관련, 경선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잠적했다가 사흘만에 경선복귀를 선언하는 등 민감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특정후보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주목된다.

그러나 박지연 청와대 전 비서실장은 기자회견담회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나”는 질문에 “정 후보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다”면서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1-year fixed-term deposit interest rate of 5.85% (fixed interest rate) by Sanghye Savings Bank.

정동영 “대선주자 3자 회동하자”

“관 안개는 게 금도... 구태정치 누명 씌우지 말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21일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기 위해 만나서 풀 것은 풀고, 서로 패어플레이를 다짐하는 신사협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손학규 이해찬 후보에게 3자 회동을 제안했다. 정 후보는 이날 부산 민주공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측근들로부터 잘못된 보도가 오해가 생겼다며, 빨리 만나 서운한 것, 잘못된 것, 바로 잡을 것 다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새로운 마음 가진으로 경선을 시작하자”며 이 같이 말했다.

손 후보의 복귀 결정과 관련, 그는 “인간적으로 고뇌를 이해하며 당과 본인, 정치발전을 위해 끝까지 경선을 하겠다는 좋은 결단을 내려 진심으로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 신당 지지자들도 가슴을 쓸어내릴 것”이라며 “정치인의 말은 천금과 같다. 완주하겠다고 한 선언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손 후보를 넘어서야 하듯 손 후보도 민주개혁세력의 정통성 있는 저를 이어야 한

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를 이길 수 있다”며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되 판을 깨지 않는 금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자신이 승리했을 때나 패배했을 때나 그것은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신을 향한 손 후보측 등의 ‘구태정치 비판’에 언급, “구태정치로 낙인 찍히려는 어떠한 의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구태정치의 누명을 씌우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권거래설”도 근거를 대시라. 왜 등 뒤에서 숨어서 하느냐”며 “유혜성 유언비어의 유포야말로 구태정치”라고 맹비판한 뒤 “5년 전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당시 경쟁자였던 노무현 후보를 지키기 위해 투신했고 상향식 공천도 만들었다. 원칙과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게 새 정치의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개>

Table listing real estate auction items with columns for item number, location, area, and price. Includes items like '아파트' (Apartment) and '단독주택' (Detached house).

Table listing real estate auction items with columns for item number, location, area, and price. Includes items like '아파트' (Apartment) and '단독주택' (Detached house).

Table listing real estate auction items with columns for item number, location, area, and price. Includes items like '아파트' (Apartment) and '단독주택' (Detached house).

Notice text regarding the auction process, including details about the auctioneer, terms of sal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urt and auctioneer.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용연